



온열의자에 앉아 차갑게 얼었던 몸을 녹입니다. 파스함을 더해주는 곳에서 칼바람을 피합니다.
꺼질 듯 불안했던 휴대폰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까지 더불어 따뜻해집니다.
작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입니다.

02-03 기획기사

'5도6철'의 도시 안산, 교통 르네상스 연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 안산-인천 구간 건설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8월에는 신안산선이 착공될 예정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안산 연장도 추진된다.

12-13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안산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모두가 소중한 안산시민이기 때문이다.

07

안산시, 어르신 일자리 4천3백 개 마련
"일자리가 곧 복지, 어르신들 생활에 생기를 드려야 한다" 안산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한다.

14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 5
양질의 식품을 생산·판매하며 꾸준히 성장,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주식회사 조흥의 유익제 대표이사는 "지 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ANSAN DREAM TV www.ansandream.tv

발행일 2019년 1월 30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 -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5도(道)6철(鐵)’의 도시 안산
교통 르네상스 시대 연다**

신안산선 8월 착공 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추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건설사업 본격 진행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체를 분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됐던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 안산이 서해안 교통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5개의 고속도로와 6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간다는 의미의 ‘5도(道)6철(鐵)’이 수년 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안산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안산을 관통하는 다섯 번째 고속도로가 될 예정이다.

10년 넘은 숙원사업이었던 신안산선이 올해 8월경 착공될 예정이며, 경기 북부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안산 구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완공되면 안산은 6개의 철도 교통망을 보유하게 되고, 전국 어느 도시든 모두 반나절 생활권 안으로 두게 된다.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고 있는 안산시의 교통 환경을 들여다봤다.

‘영동’타고 동해로, ‘서해안’타고 서해·남해로, 수도권은 1·2순환도로로

안산시는 현재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경기도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개명 요청, 이하 제1순환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으며, 최근에는 안산과 인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남쪽 지형만을 감안할 때 북서쪽에 치우쳐있다고 할 만한

안산이지만 도로 교통만큼은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동해바다를 가고 싶으면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서해나 남해를 가야할 경우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각 시·군을 방문할 때는 현재의 제1순환도로가 편리하다. 더구나, 경기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이하 제2순환도로)도 올해 본격 착수 될 예정이다.

최근 제2순환도로 중 안산-인천 구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총사업비 1조4천87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인천 중구 신흥동을 잇는 길이 19.4km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제2순환도로 전체 12개 구간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돼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개통한 안산-송산(9.8km) 구간과 김포-인천(28.9km) 구간이 단절돼 있는 상태다.

이 구간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 1.02로 타당성은 확보됐었으나 재무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한 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B/C 1.01,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0.507이 도출됐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안산의
고속도로
현황

1. 영동고속도로

안산의 대표적인 고속도로로 1971년 노선명이 지정됐다. 인천 서창분기점에서 강원도 강릉분기점에 이르는 고속국도로 길이 234.39km, 왕복 4~8차선이다. 국도를 동서로 횡단하며 물자수송과 관광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안산은 안산IC와 서안산IC 두 개의 틀게이트, 총 연장 7.5Km 구간이 포함돼 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북수원까지 확장할 계획도 마련돼 있다.

2. 서해안고속도로

서울과 전남 목포시를 잇는 길이 341km의,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고속도로다. 1990년 12월 착공해 2001년 12월 완공했다. 인천 국제공항 및 국제해양관광단지, 태안반도, 변산반도, 다도해 등 아름다운 관광지들과 연결된다. 인천~안산(28km) 구간은 1994년 7월 개통됐고, 안산~당진(61km)·서천~군산(22.7km)·무안~목포(23km) 구간도 1998년 완공됐다.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재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명칭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안양~안산~고양~의정부~구리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한다. 환상형 도시순환 고속도로로 총길이 127.5km, 왕복 8차선이다. 수도권의 교통량 급증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고, 1988년 착공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4. 평택-시흥고속도로

2013년 개통됐다. 경기도 평택시를 기점으로, 시흥시를 종점으로 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선이며,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총 연장은 39.39km에 이르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분기점~안산분기점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서창분기점~안산분기점 구간의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이다.

5. 수도권 제2순환도로

안산의
철도
현황



지난달 2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간의 실시협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신안산선의 출발점인 안산시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사업자인 넥스트레인(주)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넥스트레인(주)은 포스코건설을 대표사로 롯데건설, 대보건설 등이 함께 시공하며 설계는 제일엔지니어링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참여한다.

신안산선은 정부 최초로 위험분담형(BT0-rs)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조4천억여 원의 자금을 투입해 1단계 구간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3.6km의 철도를 건설한다. 2단계는 여의도에서 공덕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안산 연장 추진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양주-수원)의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이나 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신청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1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주파하



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는 C노선을 금정에서 수원방향과 안산방향으로 Y자로 나눠 운행하는 방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GTX-C노선은 애초 기존 노선인 과천선과 경원선을 공용 사용해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계획됐었으나 사업성과 수도권 남북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부선 공용 사용 및 경원선 연장이 추가 반영돼 사업이 확정됐다.

시는 금정에서 경부선, 안산선을 Y분기하는 GTX-C노선 운영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인 안산지역까지 확대해 지역개발과 연계시켜 사업의 수요 및 경제성 증진으로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시 안산선 공용 사용을 반영시키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과 함께 4호선의 효율적인 급행열차 운영 방안도 검토해 삼성역 등 서울 중심부 접근시간 단축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이라는 도시는 도로와 철도교통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며 더구나 인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까지 완공되면 안산은 서해안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은 물론 전국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조사비 10억 원이 반영돼 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중 착공이 기대된다.

서울 강남·여의도 ‘30분대 진입’, 광주·부산 ‘반나절 생활권’

철도교통 환경은 더욱 고무적이다. 4호선으로 불리는 안산선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부천시를 생활권으로 포함시킨 서해안선(소사-원시)이 개통됐고, 올해는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과 새롭게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 안산시 교통 환경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신안산선, 올해 7월 승인, 8월 본격 착공 목표

지난달 실시협약을 체결한 신안산선이 올 7월 실시계약 승인을 받고 8월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시흥 지역과 서울 여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 시설로,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여의도까지 현재 100분에서 25분(급행)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신안산선 조기 착공

1. 수인선(올해 개통 예정)

1937년에 개통돼 1995년까지 운행된 수인선 협궤열차가 운행되던 곳을 복선 전철화하는 수인선이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 안산을 중심으로 수원과 화성, 인천을 왕래할 수 있는 동서 간 광역철도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반지하화 건설로 전철역 상부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2. 안산선(4호선)

1988년 서울~안산 간 전철이 개통됐다. 경부선인 군포시 금정역과 안산시 안산역을 잇는 복선전철로 반월역, 상록수역(용신역), 한대앞역, 중앙역, 안산역이었다. 이후 1994년 사당~인덕원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안산의 교통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1992년 고잔역, 1994년 공단역(초지역), 2000년 신길온천역이 증설됐다.

3. 신안산선(8월 착공 예정)

안산을 출발해 광명역~여의도~서울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급행철도인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될 예정이다. 중앙역~한양대(90블록)까지 노선 연장도 확정했다.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산업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서해안선(소사-원시선)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가 기간철도 소사-원시선이 지난해 개통됐다. 부천 소사~안산 원시까지 23.3km이며 안산에는 석수골, 선부, 화랑, 원곡, 원시역이 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교통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으며, 이후 소사역은 대곡-소사선과 연결되고 원시역은 서해선(장항선 흥성역과 송산역을 잇는 간선철도)과 연결될 예정이다.

5. 인천발KTX(초지역 정차)

부산 2시간30분, 광주 1시간40분이라는 쾌속주행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다. 또 4호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등의 철도 노선과 연계돼 전국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개통 목표.

6. GTX C 노선



“버스 기다리며 스마트폰 충전하세요” 지역 내 10개 버스정류장, ‘스마트폰 충전기’ 시범설치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의 일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스마트폰이다. 휴대폰은 거의 전 국민의 손에 들려있는데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8%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다보면 어느 순간 배터리가 소진되어 충전기가 당장 없다면 곤란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안산시는 버스정류장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것.

안산시는 우선 시범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안산시청과 지하철역 주변 등 지역 내 버스정류장 10개소를 1차로 선정해 설치했다.

상록구에는 한양대입구 양쪽, 한양아파트 후문,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성포중학교 정류장에 설치했고, 단원구에는 안산시청 양쪽, 중앙역, 중앙초등학교, 고잔역 정류장에 설치해 총 10개소이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폰 충전기는 유·무선을 통합해 안드로이드폰(5핀, C타입)과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충전기는 야간에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원래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1~2개월 후 스마트폰 충전기 시범 설치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만족도가 좋을 경우 모든 정류장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확대 설치할 경우 현재 충전기의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편의성과 미관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산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다보면 항상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충전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어서 좋다”며 “시에서 시민들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문의 : 안산시 U-정보센터(031-481-338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시 ANSAN 2019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THE 65TH GYEONGGIDO SPORTS FESTIVAL

2019. 05. 09(목) ~ 05. 11(토) 3일간
개회식 ▶ 2019. 05. 09(목) 18:00 안산 와~스타디움

생생도시 안산에서
도약하는 강국의 길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THE 9TH GYEONGGIDO PARA GAMES

2019. 05. 23(목) ~ 05. 25(토) 3일간

경기도체육회 안산시 안산시체육회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발대식 개최

청소년의 참신한 시각과 콘텐츠로 안산의 숨은 매력 홍보



안산시에서는 청소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시각을 활용한 참신한 콘텐츠로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을 구성하고 1월 29일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80여 명의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은 안산의 아름다운 명소, 축제, 행사 등 우리 주변의 숨은 매력을 전하는 안산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산시는 학생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KBS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꿈꾸는 방송학교’ 교육 등을 통해 기자단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지 견학,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오천 안산시 공보관은 “뉴미디어의 급속한 성장으로 정보전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안산의 매력적인 모습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생기자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3759)

“안산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범죄 막는다!”

지역 내 452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상시 점검 시작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가 1만 1178건 발생했다고 한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은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리는 비상벨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에서도 이런 공중화장실 범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지역 내 452개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력을 고용, 2인 1조로 매일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기간은 총 6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해 1년 동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점검 방식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전파탐지기,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구석구석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정밀하게 체크하고,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법촬영 점검 작업 시에는 주의 문구가 쓰인 조끼를 착용하고 점검안 내 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등 민원발생 사전 예방 및 홍보 효과를 추구하기도 한다.

점검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나 공공기관 건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안산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만약 적발되면 112에 신고하고 그 화장실은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 주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또 범죄 예방 및 홍보 효과를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사업에 대한 ‘대 시민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공중화장실 30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비 또는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6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오다가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천2백만 원을 확보하여 모든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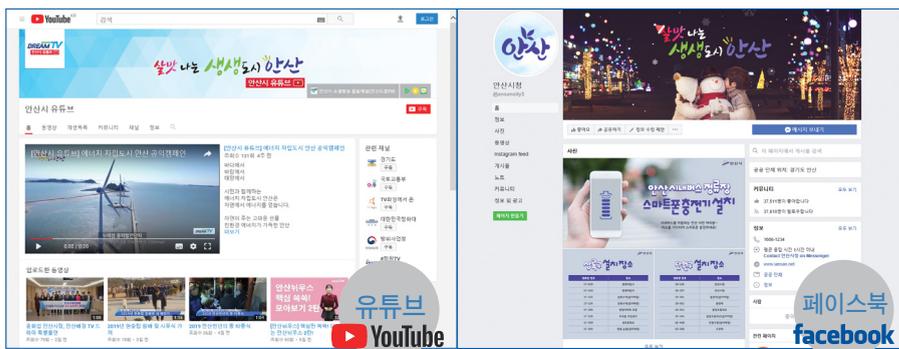
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2019년 상반기에 112상황실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비상벨은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름으로써 112상황실과 통화가 되는 기능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안산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09)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소식을 빠르게 접하는 방법, SNS

맛집 정보, 구인·구직, 각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 ‘가득’



내게 꼭 필요한 정보였는데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되어 아쉬웠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특히,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복지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는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것들이 많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계정에 대해 북마크 또는 팔로우해 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산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안산시청’ 페이스북 페이지는 3만7천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행사나 제도 및 지원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요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유튜브 계정도 있다. ‘안산시 유튜브’ 채널은 안산시청 소셜방송 ‘안산드림TV’의 공식 채널이며, 안산의 소식을 영상으로 재미있고 쉽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안산시 SNS 시민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유용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는 안산시 공식 블로그, 4050세대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 감성 사진 위주의 콘텐츠로 젊은 세대들에게 호응이 높은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롭게 안산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

구’ 채널을 신설하여 안산시민들과 빠르고 적극적인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

안산시 프로축구단의 공식 채널인 유튜브 ‘안산그리너스FC’는 경기 하이라이트나 축구선수들이 참여한 봉사활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SNS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의 ‘안산소식’ 페이지는 11만7천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 분실물센터를 운영해 지역 공동체의 영향을 보여주기도 하며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안산핫플레이스’ 페이지도 인기다. 9만5천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맛집이나 안산시내 상점들의 이벤트 소식을 전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청 홈페이지(1666-1234), 안산드림TV(031-481-3126)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BRAVO ANSAN

안산시 지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은 무료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메일 _bravo@iansan.net
• 전화 _ 031-481-2042



소식通

올해부터 소득·재산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절차 간편해지고, 4월 25일에 1월부터 소급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기존 수급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

대상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하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홈페이지 www.ihappy.or.kr

2019년 신청 유의사항

1.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19. 3월까지 신청 필요
2. '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드릴 예정이므로 재산정 불필요
3.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부터 소급 하여 혜택

안산시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약 900명이

추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부터 소급 지급 받게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함으로써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예정이다며,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에서는 아동수당 보편 지급을 대비해 지난 1월 9일, 동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아동수당 업무처리 지침 배포 및 세부적인 업무 처리방법을 교육하는 등 시행 준비기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319)

주말농장 분양 신청하세요!

4곳 3,375구획 분양...2월 7일부터 접수

안산시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해 분양한다. 올해는 단원농장(신안산대역), 초지농장((구)단원구청역),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부근) 총 4곳, 3,375구획을 분양하며, 단원, 초지, 유원지농장은 1구획당 2,150원(16.5㎡), 신길농장은 8,590원(66㎡)으로 유료 분양된다. 주말농장 신청은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2월 9일 오후 4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 1세대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접수 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접수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문의 : 안산시농업기술센터(031-481-3765/
https://nongeoop.ansan.go.kr)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한다

1마리당 최대 10만원...올해 600마리 지원

안산시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미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마리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에는 600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입양 후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23)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031-296-0244)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안산시는 국내·외 여행객들의 안산 방문 유도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내국인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관내 유·무료 관광지 및 안산특화거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당일 관광은 8천원, 숙박관광은 1만2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업체별 1회 한도액은 최대 8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안산시 관광과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를 동반하는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내 중·소 상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2722)

2019 안산국제거리축제, D-100 카운트 다운 시작 슬로건 '웰컴 투 더 스트리트 A(Welcome to the street A)'



안산시가 주최하는 '2019 안산국제거리축제'가 D-100일(1월 24일)에 맞추어 공식 포스터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이니셜 A를 형상화한 타이포를 중심으로 좌측에 자리한 2019 안산국제거리축제 슬로건 'Welcome to the street A(웰컴 투 더 스트리트 에이)'가 눈길을 끈다. 예술불꽃을 표현한 포스터 디자인은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포스터의 대표 오브제는 안산(Ansan), 예술(Art), 모두(All) 등을 뜻하는 알파벳 A이다. 알파벳 A는 단순한 이니셜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재창조하는 축제를 나타낸다. 특히 양팔로 안고 있는 A의 형태

를 통하여 예술적인 포용과 화합을 상징한다.

2019 안산국제거리축제 슬로건은 'Welcome to the street A(웰컴 투 더 스트리트 에이)'이다. 스트리트 A는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인 안산문화광장의 거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면서 예술의 거리를 찾은 누구나 축제의 주인공으로 환영하고 초대하는 의미를 담았다.

축제 공식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되었다. 두 가지 타입으로 공개된 영상은 축제를 이미지로 표현한 영상과 축제 발자취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두 영상은 2019 안산국제거리축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예고편으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인다.

2019 안산국제거리축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축제 개최까지 100일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터와 티저 영상은 안산국제거리축제 공식 블로그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8)

안산시, 어르신 일자리 4천3백 개 운영

신규 공공 일자리사업 확충으로 사회안전망도 확대

일자리가 곧 복지... 생활에 생기를 드려야

안산시는 시민들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한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오랜 기간 소득이 필요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개로 소득보충 기능뿐만 아니라, 질병 및 고독완화, 사회연대감 증진을 통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자리이다. 이에 안산시는 2019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018년 대비 1천70개가 늘어난 4천 3백 개를 운영한다.

또한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확대되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으로 일자리의 질도 개선됐다.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 3월부터 추진하는 '어르신 희망리어카 일자리 사업'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인 4백 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정비와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환경정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깨끗한 도시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 완화와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 및 안정적인 소득원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70여명이 늘어난 4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 5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특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6개 분야 460여 개의 신규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신청 가능한 신규 공공 일자리 활동인 공익활동에는 문화재지킴이, 공원관리, 시청사 클린사업, 깔끄미 사업단 등 37개 사업과 사회서비스형에는 보육시설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만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장형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우리콩두부사업단, 은빛세차사업단, 아파트실버택배, 공동작업장 등 16개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에는 시니어인력풀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에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드리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안산시는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와 참여 어르신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를 통한 노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안산시청 노인일자리 사업부서(노인복지과 ☎481-3352, 일자리정책과 ☎481-3279)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상록구.단원구 노인복지관, 안산시니어클럽 등)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사업 안내

구분	원서접수	사업기간	인원(명)	참여자격	사업내용	접수처		
계			3,876					
취약 계층 · 노인	희망 일자리 사업	1단계	2018. 11. 15~11. 23	2019. 1. 7~4. 26	361	기준중위소득 65%, 재산 2억 이하 취약계층	동행정부지센터	
		2단계	2019. 3. 14~3. 22	2019. 5. 7~8. 23	300			
		3단계	2019. 7. 11~7. 19	2019. 9. 2~12. 20	300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공모)	상반기	2019. 1. 18~1. 25	2019. 3. 4~6. 30	261	기준중위소득 65%, 재산 2억 이하 취약계층	동행정부지센터	
		하반기	2019. 5. 20~5. 31	2019. 7. 1~10. 31(예정)	249			
어르신 희망 리어카 사업	상반기	2019. 2. 11~2. 15	2019. 3. 11~6. 7(예정)	200	만65세이상 어르신	동행정부지센터		
	하반기	2019. 8. 5~8. 9	2019. 9. 9~12. 6(예정)	200				
중년	디딤돌 일자리 사업	상반기	2019. 1. 14~1. 18	2019. 3. 4~7. 3	110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민원동2층 취업상담센터	
		하반기	2019. 5. 13~5. 17	2019. 7. 15~11. 14	110			
	동 특화 사업	연중	2019. 3월중	2019. 3월~11월	50	안산시 거주	동 환경정비 개선사업	동행정부지센터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공모)	연중	2019. 2월중	2019. 3월~11월	100	안산시 거주	행정, 교육, 금융 등에 관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장 방문 또는 인터넷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공모)	연중	2019. 2월중	2019. 3월~12월	110	만50세이상	지역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인력	민원동2층 취업상담센터	
청년	청년 인턴	연중	2019. 1. 14~1. 18	2019. 3. 4~10. 31	70	안산시 거주 만18세~39세 청년	공공기관 실무경험	민원동2층 취업상담센터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동계	2018. 12. 5~12. 13	2019. 1. 2~1. 31(7시간) 2019. 1. 2~2. 28(4시간)	240	주민등록 안산시 국내대학 재학생	행정기관 사무보조 및 아동학습 도우미	시 홈페이지 인터넷
		상반기 학기 중	2019. 1. 18~1. 30	2019. 3. 2~6. 28(예정)	30			
		하계	2019. 6. 7~6. 12	2019. 7. 2~7. 31(7시간) 2019. 7. 2~8. 30(4시간)	300			
		하반기 학기 중	2019. 7. 19~7. 24	2019. 9. 2~12. 20(예정)	30			
	일생활균형 (월라벨)일자리창출사업(공모)	연중	2019. 2월(예정)	2019. 2월~12월	20	만 39세 이하 청년층	안산워라벨 우수 선정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방문 접수
	청년창업가이드사업(공모)	연중	2019. 2월(예정)	2019. 2월~12월	5	만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지원기관, 창업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	방문 접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고용환경개선)(공모)	연중	2016년 이후 계속사업	2019. 1월~12월	810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근로자 기숙사지원보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경력단절이음행복플러스)(공모)	연중	2019. 2월	2019. 2월~12월	20	40세이상 중장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복지서비스기관의 인력난 해소 위해 실무형교육으로 취업연계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친환경 교육플랫폼, (주)자연미감 엄마강사들, 천연 제품 알리미가 되다

친환경 교육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인 여성 인력의 개발과 성장을 지향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자연미감'의 한봉숙 대표를 만났다. '자연미감'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 재료로 미용·생활제품을 개발해 디자인부터 상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체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세트 생산이나 지역브랜드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 대표는 천연보습제, 각질 제거와 미백, 한방생활용품 등을 주제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분 좋은 날'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한 경력의 소유자다.

제품디자이너였던 워킹맘 한 대표는 아토피를 앓던 큰아이의 피부 개선을 위해 천연재료를 이용한 한방비누와 화장품에 대해 공부했다. 대구 한의대 대학원에서 본초학이나 한방 원리를 배우면서 천연원



료에 대한 지식을 쌓았으며, 천연비누와 화장품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숙명여대, 한양대, 단국대 등 대학의 사

회교육원에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후 강좌를 시작했다. 대학 강좌는 기관 강의로 이어졌고 그렇게 강의를 한 지 16년째다.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와 보건소 등 기관 강좌를 통해 천연제품을 알리고 있는 한 대표는 안산 특산물인 대부도 와인과 동주염전의 천일염을 이용한 제품으로 경기도와 안산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함께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2017년 7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지를 틀었다.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한 제자들과 함께 '엄마강사들이 좋은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뭉친 것. 이들은 그 동안 쌓은 강의 노하우를 나누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아이가 아닌 후배 임산부들과 부모님 세대의 노후와 건강을 생각하며 의미 있게 살겠다'는 각오로 사회적기업 대열에 들어섰다.

한 대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인 천연제품을 오랜 시간 만들었고,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이제 엄마강사들과 함께 노력해 지역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과 동시에 공모사업으로 '자연 엄마학교 임산부 태교교실'을 열어 산모와 아기를 위한 아로마비누, 방향제, 한방화장품, 오가닉 배냇저고리, 애착인형 등의 제품을 알렸으며,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지정받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항암교실을 여는 등 교육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자연미감에서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시민 무료특강을 연다. 2월 8일은 고보습립밤, 22일은 탈모케어 황금한방샴푸를 만든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재료비는 만원이다.

◇ 문의 : 자연미감(031-484-468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우리의 민화(民畵)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뮤이뮤아'

한국적 정서를 무늬로 만들며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실현하다

안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중 하나인 예대캠프에서 한국의 전통 민화(民畵)를 주제로 패턴 디자인을 하는 '뮤이뮤아' 임경희 대표를 만났다. 인화대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했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공학도였던 임경희 대표는 대학에서 디자이너로 진로를 선회했다. 섬유디자인 학원에 다니고 한지공예, 닥종이, 조각보, 민화를 배우면서 한국적인 패턴에 호기심과 흥미가 생겼다. 이후 중동리류와 켈트를 다루는 무역회사, 침구류 업체 등 8년 여의 직장생활을 접고 텍스타일 디자인(원단에 자수나 프린트 무늬를 디자인하여 의복, 인테리어 패브릭 등을 창작하는 작업)을 따로 공부했다. 이후 텍스타일 디자이너이자 강사로 활동하며, 침구류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서울 예술의전당, 인사동 등에서 정기회원전을 여는 등 민화를 그려오던 임 대표는 1인 기업 '뮤이뮤아'로 2017년 1월 예대캠프에 입주했다.

입주 3년차인 임 대표는 "청년큐브는 창업 공간 제공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사업 초보에게 정신적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다른 팀에게 조언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으며 서로 시너지가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는 이곳에서 모두 함께 잘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뮤이뮤아'의 디자인은 독특함과 화려한 색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알)'을 토대로 '한국적이지만 한국적이지 않은



것'을 표방하며 우리의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자연의 경치, 생활 풍속, 복을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등 순수하고 소박하며 솔직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민화 텍스타일로 자연에 대한 사랑, 웃음을 잃지 않는 익살과 맛을 전한다. 또한 2년여 연구 끝에 올 1월 수박, 까치와 호랑이, 십장생도가 그려진 컵을 출시해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뮤이뮤아는 패턴 디자인을 인테리어 원단과 제품(쿠션, 앞치마 등), 켈트 원단, 아동 원단, 도자기류, 문구류 등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전통한복의 디테일을 현대의상에 접목시켜 하나의 제품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문의 : 뮤이뮤아(<http://smartstore.naver.com/heeujei>)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INTERVIEW

66

인정이 흐르는 마을의 정자처럼... 기댈 언덕 될 것

99



• **민경재** 둔배미복지센터 과장

2018년 12월 단원구 초지동 707번지에 둔배미복지센터가 건립됐다.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면적 589㎡,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며 활동실과 커뮤니티 공간, 회의실 등이 마련됐다. 센터의 책임 실무자인 민경재 과장을 만나 센터가 만들어진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Q 둔배미복지센터는 어떻게 건립되었나?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의 범위를 넓히고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립됐다.

Q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지역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제공 기능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세웠다.

Q 세부적인 활동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2층을 소개하면 다양한 방들이 친근하고 예쁜 이름표를 달고 주민들을 기다

리고 있다. 꽃마루, 솔이네, 봄이네, 사랑방이 있고, 3층에는 들마루, 영희네, 철수네, 노아네가 있다.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계획은 초등학생 단기 방학생활(방학과제 같이 하기), 싱글 노인 바깥 활동(친구와 함께 활동하기), 원데이 클래스 외에 교육문화 프로그램, 단기 이웃동아리 등이다.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지금은 초등학생 단기 방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한다. 강사는 센터 내 사회복지사가 진행한다.

Q 프로그램들을 위한 강사들은 어떻게 구성하나?

전문가가 필요한 강좌도 있겠지만 재능기부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정소식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Q 센터 운영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나?

본관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 1~2월 동안 마무리해서 오는 3월부터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때그때 개선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둔배미복지센터를 마을의 사랑방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 목마르면 들어와서 물마시고, 더우면 시원하게 쉬다 가고, 추우면 손 녹이고, 따뜻한 차와 수다 떨고, 배우고 성장하고, 인정이 흐르는 마을의 정자처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낙인이 없는 동네의 조화로운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고 싶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둔배미복지센터가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해줌으로써 다른 마을에도 모범이 되어 소규모 복지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기댈 언덕이 되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문화가 안산시와 나라 전체에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의 : 둔배미복지센터(031-411-2152) /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③



중국 음식 '마라탕'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 매콤한 육개장을 원한다면 '강추'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중화된 음식이라서 동네 골목마다 마라탕 음식점이 있다. 어쩌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진 짜장면이나 탕수육 등의 음식보다 더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라탕은 장강 인접 지역의 사공들 사이에서 요리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공들은 배를 젓다가 힘이 들 때면 강변에서 불을 피우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채소와 몇 가지 향신료 등을 넣어 끓여 먹기를 즐겼다. 행거는 채소가 없을 땐 주변에서 직접 채취하여 강가에서 잡은 생선들과 함께 끓여먹기도 했다.

이런 요리법은 순식간에 장강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고 민간인들의 생활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부두 행상인들이 마라탕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요리법이 내륙으로 점차 퍼져가던 중 충칭성의 한 식당에서 마라탕을 정식 메뉴로 내놓았고, 이것이 현재의 마라탕과 가장 유사하다.

덕분에 지금은 어느 지역,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마라탕 가게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오늘날 마라탕은 채소, 고기, 해산물, 면 등을 각종 향신료와 두반장으로 만든 소스 그리고 육수를 이용한 국물에 끓여서 완성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밥이나 국수 따위를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풀다'라는 뜻의 '말다'가 연상돼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라탕의 마는 저릴 마(麻)자이고, 라는 매울 랄(辣)자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운맛을 기본으로 한다. 먹어본 사람들은 한국의 매운 육개장과 비슷하다고 한다. 마라탕의 육수에 국수를 넣으면 마라국수, 양고기를 넣으면 양고기 마라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요청하면 덜 맵게도 조리 가능하다.

◇ 문의 : 봉선마라탕 (031-493-8281)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좋은아침 페스츄리 가든점, 기부 행사에 시민 발길 이어져 매월 12일 ‘도깨비 잔칫날’ 행사로 청소년 자립 돕는다



1월 12일, 상록구 장하동에 자리한 ‘좋은아침 페스츄리 가든점(대표 최세호)’에서 ‘도깨비 잔칫날’ 행사가 열렸다. 좋은아침 페스츄리는 ‘좋은아침 베이커리’의 세컨드 브랜드 격으로 페스츄리 빵에 특화된 매장이다. 좋은아침 베이커리는 안산 한대앞역에서 시작해 전국에 40여 가맹점으로 확산되면서 제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저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최 대표의 경영철학에 따라 40여 직영 매장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달 쿠폰 발행 다음날인 2일과 16일에는 아메리카노를 1천 원에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좋은아침 페스츄리 가든점에서는 이와 병행해 지난 8월부

터 안산희망재단, 안산시그룹홍연합회와 함께 매월 12일 ‘도깨비 잔칫날’을 열어 지역 내 30여 곳 그룹홈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오현주 안산희망재단 사무국장은 “도깨비 방망이가 똑딱할 때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콘셉트로 여는 도깨비 잔칫날은 바자회, 공익 경매, 가수와 그룹홈 청소년들의 재능기부 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시민들이 기부와 모금의 주체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월 1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에서 구매하는 빵과 음료 판매금액은 전액 안산시 그룹홈 청소년들의 자립 기금으로 사용된다. 기금은 그룹홈 보호를 받던 청소년들의 ‘디딤 씨앗통장’에 적립해 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일부는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 운영비로 사용된다. 8월부터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은 1천4백9십4만여 원. 도깨비 잔칫날 행사를 통해 월평균 2백여만 원이 모금되는 셈이다.

판매금액이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안내받은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회사원 권성미·장미영 씨는 “SNS에서 기부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함께 시간 맞춰 왔어요. 평소에 기부를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맛있는



빵도 먹고 기부도 하고 1석2조입니다.”라며 부모님께 드릴 빵을 골랐다.

1층 매장에는 모든 메뉴의 기본이 되는 크로와상, 새우와 계란, 생크림과 딸기가 들어간 샌드위치, 케이크 등 30여 종의 빵이 구비되어 있으며 파스타, 샐러드 등 브런치 메뉴도 갖추고 있다.

안산IC 인근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어 야외 정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레스토랑 느낌의 2층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 문의 : 좋은아침페스츄리 가든점(031-411-0095)
안산희망재단(031-411-198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첨가물 없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안산시니어클럽, 건강미 현미누룽지 사업 ‘인기’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두른 어르신 세 분이 5분도로 도정된 현미 분오쌀을 정성스레 씻는다. 네 번 헹구고 백 번 문지른 후 세 번 더 헹구어 낸 쌀로 밥을 짓는다. 이후 초밥기계에 넣어 일정 분량으로 나눠 모양을 갖춘다. 누룽지 틀에 넣고 김을 뺀 후 눌러주면 옛날 수제 방식 그대로 영양만점 누룽지가 만들어진다.

안산시니어클럽(관장 이홍배) 현미누룽지 사업소(이하 누룽지사업소) 김선희 팀장은 “5분도로 즉석 도정한 100% 경기도 분오미(米) 좋은 쌀만 사용해서 현미누룽지를 만들어 쌀눈이 살아있다. 영양가도 높고 고소하다. 또 일체의 첨가물 없이, 작업환경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는 일품 건강간식”이라고 소개했다.

‘누룽지사업소’가 단원구 보배4길 47 1층(외동 열녀문 사

거리 인근)에 문을 연 것은 지난해. 일을 통한 노인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 어르신들께 제공해온 안산시니어클럽의 시장형 공공사업의 하나다. 만 60세 이상 시민 열 명이 하루 3시간 씩 주 3일간 교대로 근무한다. 시급 8천350원으로 한 사람 당 한 달에 약 35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자 고잔동 주민 김혜경(65) 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어르신 취업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가서 면접보고 합격해서 누룽지 사업에 함께 하게 됐다. 그때가 2017년 추석 전이었는데, 10월말 경 이 자리가 사업장으로 결정됐다.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다. 초기 멤버 7명이 계속 함께 일하고 있다. 3명이 더 들어와 현재 10명이 근무하는데, 젊었을 때 다들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이고, 지금도 자기 몫을 책임감 있게 하는 분들이라 자각이나 결근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명절이 가까워지며 누룽지를 찾는 주문이 쇄도하면서 어르신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주문량 이외 그날 생산량은 즉석 현장 판매와 분오동 반월농협 로컬푸드점, 안산도시공사, 상록수보건소 1층 로비를 통해 판매된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건강먹거리홍보단’이 또 다른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만든 명품기름(참기름, 들기름), 가래떡, 전통유과, 깨강정 세트 등을 홍보·판매한다. 보건복지부가 개설한 ‘하나하나몰’에서도 판매한다.



이홍배 관장은 “판매수익금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으로서 고령사회 주역인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산시니어클럽은 와동 꽃빛공원휴게소 운영, 아파트실버택배 사업, 부업 공동작업장 운영, 공공시설지킴이 공익활동을 포함한 22개 사업을 진행해 어르신 1천300여 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문의 : 건강미 현미누룽지 사업소(031-402-4564)
안산시니어클럽(031-401-818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곽은주 (더 스페셜아트:블루윙스 대표)

INTERVIEW

“발달장애 청소년, 그림으로 날개를 달다”

지난해 연말, 한국자연미술협회의 기획초대전이 단원 미술관에서 열렸다. 많은 작품 중 아이들의 그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순수함부터, 정교한 작업이 주는 독특함까지 눈에 띄는 창작집단이 있었다. 안산지역 발달장애 청년 예술가를 육성하는 ‘더 스페셜아트:블루윙스’를 찾아 곽은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Q. ‘더 스페셜아트:블루윙스’는 어떤 곳인가?

안산에 거주하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친구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재료 지원 등 기본적인 것부터 작품전시의 기회, 배움의 기회 등을 열어주는 예술 활동 지원단체이다. 사회의 시선으로 평범하지 않은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을 그 자체로 봐주고 인정해주는 단체다.

Q. 발달장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두 부분을 주로 말한다. 자폐라는 단어가 보통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자기만의 성향이 강력한 것으로 주변에서 이해 못할 수 있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찰력이 뛰어나다. 직접해보지 않아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실현되는, 될 때까지 실현 시켜내는 것을 말한다. 과학자 에디슨도 현재 보면 자

폐였다고 한다. 자폐는 성실의 다른 이름이다.

지적장애는 지능이 사회에서 말하는 평균보다 낮지만 일상은 살아갈 수 있다. 학습에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지능이 낮은 건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는 매우 집요하다. 본인은 필요하지 않은데 사회가 요구하기에 학습해야 하는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Q. 그런 특징이 미술 활동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무언가 받아들이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 친구들이 있다. 시각적, 청각적 등 오감을 느끼는 데시벨이 다르며, 상상의 범주도 다르다. 한없이 자꾸 손을 흔드는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 햇살에 손을 흔들고 있는 행위라거나 계속해서 책에 얼굴을 문지르는 친구가 있는데 소설책에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제 아이의 경우도 어릴 때 줄 하나를 긋는데 뭔가 달라보였다. 기존의 학원 교육은 대부분 집체적 교육인데 색칠 한번 하고 나가버리는 이런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Q. ‘블루윙스’를 만들게 된 배경은?

안산에 미술을 잘하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존재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였다. 하루 종일 그림



을 그리고 싶은데 그런 공간은 없다. 제도권 내로 들어가면 이 친구들을 그냥 유아적으로 대한다. 작품을 전시하거나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래서 몇몇 부모들이 나서 ‘블루윙스’를 만들었고, 이는 전국 최초다. 2017년 12월에 만들어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 내년에는 미국 LA에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Q.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우선 올 한해 잘 넘겨야 한다. 그리고 안산지역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이 좀 가시화 됐으면 한다. 발달장애의 경우 취업률이 1%다. 그나마 유지하기도 어렵고 복지시설에 의존해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이 된다. 지역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예술 활동에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인생과 행복의 철학을 나누다”

진은영 (영화인문학 강사)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1년여 재능기부를 하고, ‘퇴근길 인문학’ 등을 운영하며 재능과 삶의 노하우(knowhow)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영화인 진은영 씨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영화인문학을 하게 된 계기는?

독일 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독일문학 작품 영화화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다방면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시네마텍대학 교양 영화 강의를 들으며, 야외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도 많

이 봤다. 국민대학교에서 ‘영상디자인의 이해’라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 지금은 다양한 기관에서 성인 개인이나 그룹으로 저녁 ‘퇴근길 인문학’과 오전 ‘힐링 시네마’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Q. 영화와 인문학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면?

영화는 대중예술이기는 하지만 책 이상으로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영화를 선택하는 법과 영화가 주는 다양한 감상법을 배워나가면 풍부한 인문학적 사고를 하게 되고 더불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어 삶이 유연해질 수 있다.

Q. 영화인문학 수업을 하며 가장 집중하는 것은?

기본 스토리텔링에 몰입하기보다는 영화가 주는 다양한 문법들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감독의 의도나 배우들의 연기, 카메라의 움직임이 주는 즐거움, 색채, 음악, 메시지 등 종합예술로서의 영화적 요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Q. 영화감상 팁 또는 노하우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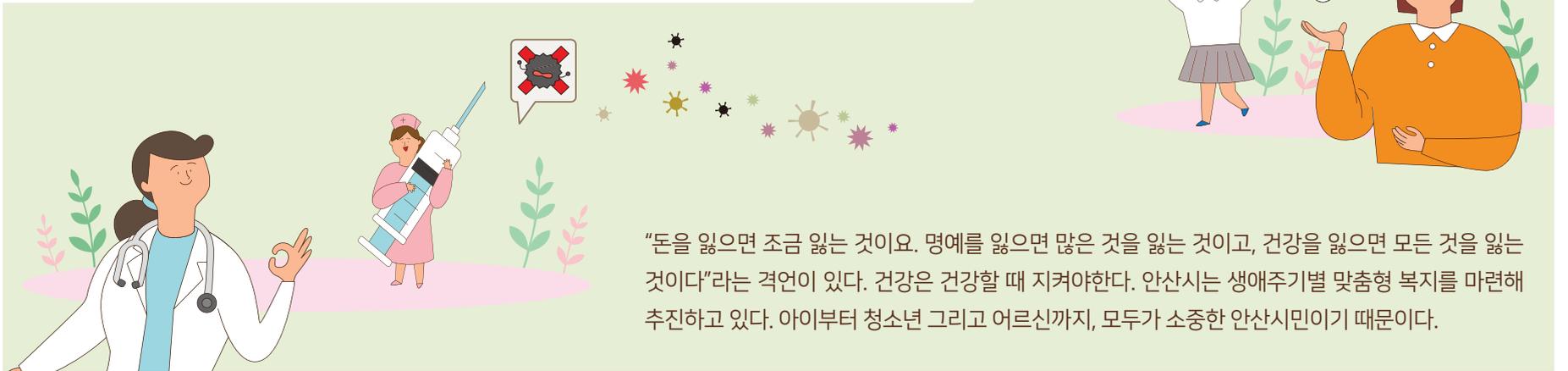
사전 정보를 통해 영화의 분위기,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건지 조금씩 정보를 보고 선택해서 감상하기 바란다. 또, 스토리 위주 보다 다양한 소리나 이미지 배경 등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좋다.

Q. 시민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최근에 죽음의 문제를 다룬 ‘아무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우리는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죽음이야말로 삶처럼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다. 지난 11월에는 인간의 감정을 읽는 영화, 예를 들면 ‘그래비티’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12월에는 기억을 치유하는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연을 쫓는 아이’ ‘라비앙 로즈’를 함께 봤다. 1월에는 2018년 최고의 영화 ‘팬텀 스레드’를 토론하고 있다. 모두 추천할 만하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한다. 안산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모두가 소중한 안산시민이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늦은 밤에도 안심하세요’

2월부터 연중무휴...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안산시는 오는 2월부터 심야시간 및 휴일에 시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취약시간대(심야 및 휴일)에 전문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통해 의약품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365일 매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현재 약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휴일지킴이 및 심야약국은 실제 운영 여부를 매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공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상록구 본오동 소재 영동약국,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세화온누리약국 2개소로, 2월부터 토·일요일·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조제판매와 복약지도 및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37)
단원보건소(031-481-6384)

홍역 확산대비 어린이 MMR 가속접종 실시

관내 만 6개월~12세 아동 대상 신속 접종



격을 두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안산시 가속접종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6개월에서 만12세 아동 중 ▲MMR접종 미도래자(6개월~11개월) ▲1차 MMR을 접종하고 최소 4주가 지난 경우로 접종기간은 2월 28일까지 가까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MMR 백신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무료로 접종하면 되고 세부 기준은 표를 참조하면 된다.

홍역 예방접종 효과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 횟수(2회)를 모두 접종하였을 경우 97%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기존에 영·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MMR 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 접종을 한 청

소년 및 성인도 접종을 권고하며 이 경우 비용은 개인부담이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홍역 예방 접종 기준표

연령	과거 접종 여부	가속 접종 대상	향후 MMR 접종 일정
0~5개월	없음	접종대상 아님	권장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따라 2회 접종
6~11개월	없음	가속 접종 권장	만세전에 MMR 백신을 접종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만4~6세에 MMR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가속접종 포함 총3회 무료 접종
12개월~만12세	없음	2회접종 ※ 최소 4주간격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향후 추가접종 필요하지 않음
	1회	1회 접종 ※ 이전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2회	필요 없음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891), 단원보건소(031-481-6475)

만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진행... 소득기준에 따라 감별검사비도 지원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치매는 뇌 기능의 손상으로 기억력이나 언어능력, 판단력 등 지적능력이 저하되어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 도구(MMSE-DS)를 이용해 무료 선별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결과 인지저하 및 치매 의심자에 대해 치매진단검사, 전문의 진료를 시행한다. 또한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 두부) 등을 협약병원에 의뢰해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치매선별검사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예약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치매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만 60세 이상 주민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년 꼭 치매선별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상록수치매안심센터(031-481-5857), 단원치매안심센터(031-481-6556)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용 지원 저소득층 만 11~18세 청소년에 연 12만6천원 바우처 지급

안산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물품(생리대) 구입비용을 1인당 연 12만6천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960여명에게 현물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여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2001.1.1.~2008.12.31.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건위생 용품 지원사업이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큰 노력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2219)



원곡보건지소,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의료사각지대 외국인 대상...매주 목요일 10시~16시



안산시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총 561명 7,122건을 검진해 이중 에이즈 포함 약 7% 유소견자를 발견했다. 검진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아침 금식 후 매주 목요일 원곡보건지소를 방문하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ray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부검진항목은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및 에이즈 등 성병, 간질환,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폐결핵 및 흉부질환 등 25개 항목이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원곡보건지소에 등록해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 시 병·의원과 연계 치료하고, 감염병 유소견자는 관리부서와 연계 등록하여 치료한다. 또한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 주민들의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와 외국인 건강증진 강화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6833)

주식회사 조흥 유익제 대표이사

“고객을 만족시킨 맛과 품질 ...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되겠다!”



제품 전시관 앞에 있는 (주)조흥 유익제 대표이사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 국가산업단지)는 안산 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식품을 생산·판매하며 꾸준히 성장,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기업이 있다. (주)조흥은 1959년 설립 이래 앞서가는 기술력과 최상의 품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유익제 대표이사 만났다.

Q 설립 60주년을 축하한다.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한다.

조흥은 60년 전 6명이 만든 회사다. 당시 조흥화학공업이란 이름으로 창업했는데 시대적 상황에 맞춰 사카린을 팔았다. 당시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돈을 막 주워왔다고들 하더라.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구조였다. 당시에는 그 수익금을 은행에만 맡겨놔도 이자가 높았다. 그러다보니 회사 발전은 더뎠고,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뚜기 계열사가 된 것은 2002년, 경영난에 빠진 조흥주식을 함태호 창업주가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면서부터다. 2004년 (주)조흥화학공업에서 (주)조흥으로 법인명도 변경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치즈, 식품첨가물 전문 제조업체가 됐다.

Q 생산품에 대한 설명과 가장 자랑할 만한 대표 제품은.

(주)조흥으로 이름을 바꾸며 치즈가 대표 제품으로 떠올랐고, 현재까지 업소용 치즈 시장에서는 최고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년에 치즈 수입량이 1만7천 톤 정도로 단일 회사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후 새롭게 개발한 냉동 피자도 성공가도를 달렸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했지만 공간이 부족했고, 저층을 고층으로 높여 공간을 마련했다. 설비가 좋아야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항상 좋은 설비를 구비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위주였던 공장을 개조해 연구시설, 사무실, 직원 복지시설 등으로 만들기도 했다. 업종 특성 상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기에 연구와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용 치즈를 개발했고 구워먹는 치즈가 대표상품이다. 그 외에도 컵피자, 컵파스타, 컵오뎅탕 등을 새롭게 편의점, 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나온 컵오뎅탕은 정말 괜찮다. 추천한다.

Q 성공적인 기업운동을 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가치나 비전은.

오뚜기 본사가 독특한 것이 요즘도 회의 시작 전에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른다. 회사 내에 큰 태극기를 설치해

두기도 한다. 이번에 새로 맞춘 명함에는 태극기를 넣기도 했다. 기업 활동하며 외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가를 대표한다는 마음이다. 창립 회장이 “국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회사도 사랑할 수 없다. 즉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사에도 잘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잘 할 것이다”라고 항상 강조하셨다.

또,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 되는 역할을 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도 그런 방향을 찾고 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 고용 현장에 나가서 같이 봉사차원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다. 시와 연계해서 안산 지역에서도 해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오뚜기 본사에서 선물세트 생산 시 틀이 잡힌 박스에 제품을 넣는 업무를 장애인 일자리로 만들어 준 사례가 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취지가 좋다.

Q 안산 지역에서 어떤 기업이 되고 싶은지?

창업주부터 항상 우리 회사는 “공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라”고 강조했다. 오뚜기 본사는 안양에 있고 안양을 위해 환원하고 있다. 안산에서 성장한 조흥도 한발씩 시도하고 있다. 음식경연대회 등 시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치즈, 피자 등 식품이 주 생산품인 조흥의 잠재적인 고객은 지역의 어린이들이다. 시 행사를 통해 우리 제품의 맛도 보여주고 홍보도 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장을 좀 더 안전하게 정비한 후 어린이들 단체 견학도 해 볼 생각이다. 식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기도 하고 손에 선물도 쥐어주고... 이렇듯 일방적으로 돈이나 물건만 쥐어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자 한다.

Q 안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안타깝게도 안산이 그 동안 좀 슬프지 않았나. 앞으로 모두가 밝고 명량한 안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안산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

◇ 문의 : (주)조흥 (031-310-700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4)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G-오픈스튜디오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올해는 안산의 열 두 작가를 찾았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중앙동 상가 건물에 자리한 박신혜 작가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작가 일생의 화두인 ‘바다’ 연작의 흔적이 밀물과 썰물처럼 시야에 드러난다. 동판화, 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기법

박신혜 작가 : “바다는 몸이다. 몸이 바다다”

끊임없는 탄생과 포용을 반복하는 ‘바다’에 대한 단상

의 판화 작품 제작이 가능한 이곳은, 소소하게 들여다보는 재미가 크다.

고3 때까지 의사라는 꿈에 매진했지만, 이후 우연히 생긴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미술로 전향한 박신혜 작가는 홍익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독일 헤센(Hessen)주 주립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1991년 제1회 카셀(Kassel) 개인전을 시작으로 스페인 주재 한국문화원 초대전, 브로드웨이 등 20여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네덜란드, 일본 도쿄 등 다수의 아트 페어(Art Fair)와 국내외 그룹전에 참가했다. 아울러 독일 카셀 시민대학 강사, 국립 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독일 유학 10년 만에 남편의 회사가 있는 안산에 터를 잡게 된 작가는 열린 시각과 가능성으로 작가들을 바라보는 해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우리나라에서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웠다고 했다. 그 때, 끊임없이 포용하고 탄생시키길 반복하는 바다가 작가의 눈에 들어왔다.

독일에서부터 첫 작업의 주제와 고민은 ‘무엇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가’였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돌아오는 건 자연, 그리고 바다였다. 이후부터 박 작가는 풍경으로서의 바다가 아닌,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힘과 생명을 가진 태곳적 바다를 그린다. 박신혜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는 몸의 바다를 본다. 작가는 오랜 시간 바다를 사유했고 그 물결의 운동성을 통해 주어진 그대로를 인정하는 평형성을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정신을 담는 공간이듯 바다도 정신의 공간이자 성

찰의 공간임을 알게 되었다. “순환하는 바다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자 꿈과 기다림과 생명 그리고 시(時)”라고 작가는 말한다.

웅크린 자세의 한 남성, 바다와 파도가 곧 몸이 된 인물, 익숙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푸른빛의 바다, 정신적 공간으로서의 바다가 함축된 파란 뇌. 바다의 본질을 극대화해 표현한 최근작은 기존 작업 세계와는 또 다른 색감과 표현으로 강렬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박신혜 작가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바다는 우리가 익히 상상하는 바다 이상이 된다. 작가의 바다 안에서 ‘나’의 바다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안산작가회 회장으로 박 작가는 “예술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공유될 때 안산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확장적인 사고와 또 사고가 멈춘 우리 예술인들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 010-5501-1836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안산YWCA, ‘착한 에너지를 위한 청소년 적정기술학교’

“청소년들이 에너지 문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2019년 안산YWCA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착한 에너지를 위한 청소년 적정기술학교’는 1월 14일부터 4일 간 안산에 사는 중학생 24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14일은 ‘적정기술과 태양광’이라는 주제로 태양광 LED 연결하기와 태양광자동차 조립실습이 진행됐고, 15일은 ‘연소이론과 강통스토브’라는 주제로 실제 강통스토브를 만들어보고 라면을 끓여 먹어보는 실습을 진행했다. 17일에는 ‘LED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LED스탠드를 직접 만들었고, 18일 마지막 날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배우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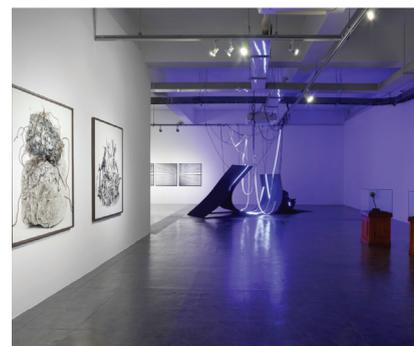
강의는 적정기술을 교육, 연구, 컨설팅하는 마을기술센터 핸즈의 정해원 대표가 진행했다. 청소년 적정기술학교를 주관한 안산YWCA 관계자는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생소한 분야였는데, 청소년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미있었다”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있어서 인상적이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방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교육을 다시 하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적정기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청소년은 “평소 몰랐던 적정기술이란 것을 배웠는데 무엇보다 LED스탠드, 강통스토브 등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문의 : 안산YWCA(031-483-6536) /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결과 보고전 개최

‘통합 불가능한 이질적 개체들’...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창작센터는 2018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결과 보고전 ‘통합 불가능한 이질적 개체들’을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창작센터 갤러리1,2에서 선보인다. 이번 결과보고전은 2018년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의 작가들이 한 해 동안 일궈왔던 창작 활동의 성과물들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기획전 형식을 띄고

있다. 작가 한 명 한 명이 개별적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사 관계자는 “예술과 세상에 대해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는 스무 명 작가들의 개성을 하나의 보편적인 주제로 묶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한 작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예술적 행위들을 실천해왔다. 예술가로서 묵묵히 스스로의 존재를 만들어간 그들은 탁월하게 예민한 감성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사이사이 겹쳐지는 지점들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질문하며 구체화시켰다. 바람이 부는 큰 섬에서 조금씩 내밀하게 단단해진, 그야말로 ‘통합 불가능한 이질적 개체들’인 그들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결과 보고전에 참가한 입주 작가들은 강은혜, 강주리, 권아람, 김재민이, 김지아나, 박선영, 박슬기, 송성진, 윤향로, 이지연, 전지인, 전형산, 정세영, 정연지, 정정호, 정지현, 정철규, 최민경, 홍유영, 홍장오 작가다.

◇ 문의 : 경기창작센터(032-890-4822) / 이선희 명예기자_jamyu70@hanmail.net

단원미술관, 한국 추상 1세대 장성순 작가의 작품 전시회 열어

2018년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기념전... 오는 2월 10일까지



단원미술관은 겨울 시즌을 맞아 학생들이 꼭 한번은 봐야 할 뜻깊은 현대미술 전시를 오는 2월 10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비 지원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중 소형면적 우선 선정

안산시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연도 강관으로 인한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로 수도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개량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80%~30%를 차등 지원하며, 세대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 배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월15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수도시설과(031-481-3666)

'주택침수 방지장치'무상 설치

여름철 주택침수가 잦은 주택 대상

안산시는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침수가 잦은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 무상설치를 지원한다. 여름철 우기에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은 가정하수관 높이와 공공하수관의 높이가 비슷하여 폭우 시 빗물이 가정으로 역류해 침수 피해를 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역류하는 오수와 우수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지하 및 반지하 세대 중 하수관경이 75mm, 100mm 및 125mm이며 옥외 집수정을 갖춘 세대다. 접수 기간은 상록구는 2월 22일까지, 단원구는 3월 29일까지이며,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록구 건설행정과(031-481-5434), 단원구 건설행정과(031-481-6434)를 방문하여 신청서(신청인 작성) 및 동의서(건물 소유주 작성)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겨울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화제가 되었던 한국 추상 1세대 장성순 작가의 작품 기증 특별전 후속 전시다.

'2018년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부문'의 영예로운 수상자가 된 장성순 작가를 다시 한 번 주목하고 그의 작품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주관·시상하고 있는 상으로 1955년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의 국민작가라 불리는 피에르 솔라주(Pierre Soulages)의 화풍에 감응해 장성순 작가의 독특한 표현 언어로 재구성한 2000년대의 작품을 주로 만날 수 있다.

피에르 솔라주의 특징은 이른바 '검은 붓질'인데 장성순 작가는 이 검은 붓질을 자신만의 특출한 개성으로 소화해 작가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다.

장성순 작가가 안산시에 기증한 작품과 함께 이번 전시를 통해 특별히 선보이는 두 점의 작품이 있다.

그 하나는 장성순 작가가 제2회 파리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품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쿄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품이다. 작가의 50~60년대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당시 한국 초기 추상의 움직임과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전시 공간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기억과 꿈의 추상'도 인기다.

장성순 작가의 추상세계에 보다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가족단위 관람객을 모집해 전문 강사의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자신 내면의 기억과 꿈의 '추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무료관람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고혈압·당뇨병 극복...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관건”



당뇨와 혈압으로 고생하던 고잔동 주민 안 모 씨(75)는 지난해 3월 상록수보건소 안내로 안산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센터장 김도훈 고려안산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하 안산고당센터)에 등록했다.

안산고당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의 원인과 관리방법, 합병증 위험에 대해 교육받고 식단관리와 운동교실에도 참여하면서 등록 당시 8.7%에 이르던 당화혈색소가 6개월만인 9월에 5.1%로 떨어지는 효과를 거뒀다.

안 씨는 “나이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만성질환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움직임은 적게 해 스스로 키운 병이란 걸 알게 됐다. 평생 함께 가야하는 친구라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해 노년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는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성인병이라 말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생활습관에서 오는 비감염성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도훈 센터장은 “질환이 발생하

는 과정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신체활동과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은 고혈압·당뇨병 극복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은 혼자서 오지 않고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복합 만성질환이 되어 합병증을 유발한다.

심근경색, 망막변증, 저혈당 쇼크 같은 합병증은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의료자원과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할 것 없이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관리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안산고당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줄 등록환자관리와 건강문자 서비스, 교육 일정·진료예약일 안내 콜센터 운영, 고혈압 당뇨병 상설 교육, 건강요리·운동 교실도 운영한다.

또, 건강행태 개선 인센티브도 지원해, 센터에 등록한 후 교육에 2회 이상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체중 2kg 감량하면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3개월 성공 후 6개월 시점까지 감량 성공 유지 시 2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도훈 센터장은 “고혈압·당뇨병이 생기면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낙심하다가 차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을 키우게 된다.”며 “의료진과 상의해 식단관리·운동요법·약물복용으로 혈압·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1·2·3차 합병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031-416-908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야구로 하나 되는 안산리그

시민의 여가생활 도모하며 엘리트 체육도 지원

안산시에는 대중적 생활 스포츠인 야구로 국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고, 또 야구가 앞으로 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안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있다.

안산리그는 안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생활체육 야구 리그이다.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발전을 지원한다. 또 야구 동호인 저변 확대와 지역 내 엘리트 체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안산리그 참가팀은 지난 2018년 10월 31일(수)로 마감했다. 기존 팀의 경우 참가비는 310만 원이며 10회 이상 장기 가입팀은 10만원 할인 혜택이 있다. 신규 팀은 33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안산리그에는 총 5개의 리그가 있으며 토요일에 진행되는 별망리그, 단원리그와 일요일에 진행되는 별망리그, 단원리그, 우리리그가 있다. 등록은 리그 간 중복이 가능하다. 선수 규정으로는 안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안산리그 ID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현재 다른 야구 관련 협회에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선수 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된 사실 여부로 결정한다. 별망리그는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선수출신 1명이 출전할 수 있으며 단원리그와 우리리그는 선수출신의 출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는 총 16경기이며 장소는 배나물(좌측:98m, 우측:98m, 센터:122m), 성곡(좌측:95m, 우측:95m, 센터:115m), 신길(좌측:91m, 우측:87m, 센터:105m), 해양1(좌

측:98m, 우측:98m, 센터:122m), 해양2(좌측:98m, 우측:98m, 센터:122m) 야구장 총 5곳에서 펼쳐진다. 매 경기 안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인



주심 1명, 루심 1명, 기록 1명 그리고 시합구 4개가 제공된다. 리그 순위 결정방식은 승점제로 진행하며 점수 산정 방법은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이다. 승점이 동률일 경우 몰수 패 횟수, 기권 패 횟수, 승자승, 최소 실점, 다 득점, 추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경기 횟수는 7회이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승전 경기 횟수는 7회로 진행하고 2시간 30분 경기이며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을 들어가지 못한다. 무승부인 경우에는 연장전에 들어가며 연장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종료되며, 연장 2회는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만약 연장 2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뽑기로 결정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안산리그'를 검색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안산시는 타 도시와 비교하여 야구장 수가 많고 협회가 1982년부터 운영되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안산을 대표하는 야구선수는 2008년 경기도 안산시 스포츠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SK와이번스의 김광현 투수가 있다.

◇ 문의 : 안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031-403-7970)/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동네 서점에서 책을 빌리는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신간을 서점에서 빌려 본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집 근처 서점에서 새 책으로 바로 대출해 읽은 후 다시 그 서점에 반납하는 제도이다. 2주일 이상 걸리던 희망도서 신청제도에 비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새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2016년 처음 도입됐고 당시에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로 불렸다. 하지만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제도와 유사한 명칭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막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바로 대출하는 제도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명칭을 변경·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점은 기존 4개 외에 신규로 2개소가 추가됐다. 대동서적, 안산문고, 원곡서점, 한가람문고, 모모책방, 토닥토닥관찰아 총 6곳이다. 협약을 맺은 서점이 늘어난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방법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해 회원증을 발급받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서점 바로대출'을 신청한다. 1인당 월별 5권 이내로 가능하며, 연체자는 사용이 불가하다. 신청 도서의 이용 가능 여부 문자를 받으면 회원증을 지참하여 서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반납은 2주 내 빌렸던 서점에 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 해 1주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도서연체, 미반납, 훼손 시 대출 정지 및 변상을 해야 된다.

서비스가 불가능한 도서는 각종 수험서, 자격증 도서 등 개인학습을 위한 도서와 만화책, 게임서 등 문단에서 인정받지 못한 작품 그리고 퍼즐북, 스티커북 등 도서관 소장도서로 부적합한 것들이 포함된다. 또한 고가의 도서(5만 원 이내), 출판 연도가 5년 이후인 책도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 자발적으로 주변에 홍보하는 등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새 책을 먼저 볼 수 있고,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되며, 신간을 사지 않고 빌려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으로 뽑혔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서비스는 2월 중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a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중앙도서관(031-481-2702) /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모모책방, '셜록을 찾아서' 표창원 저자와의 만남

작가와 함께 떠나는 추리여행

지난 1월 5일 사동의 독립서점 모모책방에서 추리여행에세이 '셜록을 찾아서' 저자인 표창원 국회의원과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사랑방처럼 작은 책방 공간은 2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저명한 프로파일러(profiler, 범죄 심리분석관)이자 범죄 심리학자였던 작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셜록을 찾아서'는 작가의 로망이자 롤 모델이었던 추리소설 속 주인공 셜록 홈즈의 흔적을 찾아 유럽 각국의 명소와 실제 사건 현장을 탐방하는 여행에세이다. 이날 표 작가는 "2012년 여름, 셜록 홈즈라는 존재를 피부로 느껴보고 싶었고, 저자인 코난 도일이 어떤 생각과 느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다."며 여행기를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저자의 책 이야기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코난 도일과 셜록 홈즈의 연관성, 코난 도일을 직접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 등 다양한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히 프로파일러로서 범죄자들에게 느끼는 복합적인 정서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긴 답변으로 돌아왔다. 표 작가는 "실제로 범죄자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면에 본인의 선택만이 아닌 여건으로 작용할 만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보게 된다. 그런 이해가 생기면 유가족들에게 죄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때 중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피해자였던 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자일 때는 그들을 돕고 치료하지만, 그들이 가해자로 변하는 순간 피해자로서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임의의 선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화영(40) 씨는 "모모책방은 작은 책방이 가진 따뜻함과 정겨움이 있어 동네를 오가며 편하고 즐겁게 찾게 된다."며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흥미로운 행사를 기획해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하고, 좋은 자극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 문의 : 모모책방(0507-1307-5084) /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동

고양이집 마련... "집사가 된 청소년들이 더 좋아해요"



최근 SNS를 통해 다양한 길고양이집 제작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동에 위치한 청소년 공간에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길고양이집이 생겼다.

청소년열정공간99°C(이하 열정공간) 전면에 설치된 길고양이집은 평소 공간 주변을 맴돌던 황갈색 새끼 고양이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길고양이를 밖에서 키우기로 했다

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목공을 함께 배우던 동네 아빠들이 직접 제작해 기증한 원목작품이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생각해 긴 계단 위에 설치된 작은 길고양이집은 디자인도 귀여워 길을 지나던 동네 아이들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명물이 됐다.

길고양이에게는 '구냥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공간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익숙한 일과가 됐다. 매일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추운 겨울밤을 대비해 고양이 집 속에 핫팩을 넣어놓기도 한다. 날이 따뜻한 오후에는 낚시대 장난감을 흔들며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구냥이와 함께 놀아주는 아이들 모습도 볼 수 있다.

길고양이집을 만든 김형우 씨는 "아빠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아들 만에 똑딱 만들었다"며 "아무래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했던 공동작

업이라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부일 열정공간 책임 교사는 "길고양이집이 생긴 이후, 아이들이 구냥이를 정성껏 아끼고 챙긴다. 겨울에 춥지 않도록 박스 지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간식을 사오기도 한다"며, "집사들의 따뜻한 돌봄 때문인지 이제 구냥이도 도망가지 않고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다. 작은 동물을 보살피고 돌보는 활동이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열정공간 앞에서 길고양이와 놀아주던 청소년들은 "구냥이가 열정공간 새 식구가 된 것이 기쁘고, 길고양이 수명이 길지 않지만 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 문의 : 청소년열정공간99°C(031-416-1318)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성포동

안전한 지킴이, 자율방법대 격려 방문



성포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6일 저녁 성포동 자율방법대를 방문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지킴이 역할을 위해 저녁있는 삶을 양보하며 고생하고 있는 방법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 날 방문에서 김현철 지대장은 운영 현황, 초소 정비 등 현안사항과 경찰서 합동 방법대활동 등 연초 계획을 전달하고 올해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성포동 자율방법대는 방법대 평가에서 매년 우수방법지대로 선정되고 있는 모범 방법대로서의 대원들간의 화합과 단합이 잘 되는 우수 지대로 평가받고 있어 모든 대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김영국 성포동장은 "개인적인 저녁 시간도 양보하며 늦은 밤까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법대가 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감사드리며 특히 성포동은 버스터미널과 대형 마트가 있어서 늦은 시간 귀가하는 분들이 많아 더욱더 방법대의 도움이 절실하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린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수데이' 행사 개최



손수 만든 떡국과 잡채 등 대접

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용길)는 2019년 신년을 맞이하여 1월 21일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장수데이'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관내 대학동, 상록마을A, 숲속마을A 경로당 어르신 100여명을 초대하여 손수 만든 떡국과 잡채, 떡, 과일 등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삼색국수를 선물하였다.

정성스런 대접을 받은 어르신들은 "추운날씨지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윤용길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며, 작은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순미 해양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해양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 간식나눔' 진행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명현, 이광석)는 동계방학이 시작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매주 수요일에 지역 복지기관(사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식 나눔 행사를 개최해 따뜻한 이웃사랑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9일부터 총 7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간식 나눔 행사는 사이동 협의체 위원들이 재료 선택부터 조리까지 직접 하고 있다. 1월에는 어묵과 김밥, 떡볶이, 주먹밥, 샌드위치를 지원했으며, 2월에는 유부초밥, 고구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석 민간위원장은 "추운 겨울철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식제공의 기회가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간식 나눔 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활동도 더불어 진행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윤명희 위원은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간식이 제공되는 수요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름도 빛도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초지동

별망중학교, 이웃 할머니·할아버지를 위한 재능기부



별망중학교(교장 홍인자) 학부모회(회장 권진아)와 학생들은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라는 주제로 초지동 18

단지 노인정을 방문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냄비 받침대를 들고 갔다. 이들은 매년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도리, 장갑, 냄비 받침대 등을 만들어 노인정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부터 방과 후에 모여 냄비 받침대를 만들었다. 별망중학교 옆에 위치한 초지동 18단지 노인정은 홀로 생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곳이다. 특히, 아침마다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애쓰시는 어르신들도 많다. 이에 대해 권진아 회장은 "학생들과 함께 노인정을 방문하는 것이 살아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

한다."며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변 학교 학생들의 아침 등교 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진정한 마을 공동체 실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인정을 방문한 별망중 학생들은 "이웃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멀리 계신 우리 할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효를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했다.

◇ 문의 : 별망중학교(031-482-3263)
이선희 명예기자_jamyu70@hanmail.net

고잔동

깨끗해져라! 우리 마을, 한뼘 갤러리

지난해 고잔동은 자원순환 청림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 주민실천단을 조직하였고 분리수거 인식 개선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로 하자는 일명 '고잔동 8.6운동'을 벌였다. 주민실천단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켜 우리 주변 환경을 더 깨끗이 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 9월에는 '고잔동의 소통하는 소소한 모임(고.소.회)'와 함께 '자원순환 청림실천 캠페인'을 열어 사용한 페트병과 종이컵을 가져오면 식물을 심어 화분으로 만들어가는 행사를 열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리플렛과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고 10월 마을축제에서 재활

용 컵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장바구니 이용으로 일회용 봉투 자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주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11월에는 쓰레기 분리와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쓰레기 적재 장소에 타일로 그림을 그려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마을 곳곳에 '한뼘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벽화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었던 쓰레기장이 쓰레기를 치우면 예쁜 갤러리로 변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이전보다 쓰레기장을 정돈하고 쓰레기 적재 또한 함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내년에도 새로운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마을을 깨끗이 정화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주민들 스스로의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한뼘 갤러리 뿐 아니라 쓰레기함을 새로 제작, 배치하고 있



다. 재질은 나무로 하여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수거함 겉면을 우드버닝으로 하여 미적 감각까지 고려하였다. 이 쓰레기함은 각 통의 통장을 통해 원하는 단지를 우선으로 배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고 늘상 쓰레기가 쌓여 지저분했던 곳이 깨끗해져서 좋다"며 반겼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와동

휴대폰 대신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보드게임



요즘 아이들은 모여도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다들 휴대폰에만 시선을 모으고 소통도 휴대폰으로 한다. 모바일과 컴퓨터에 몰입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걱정되지만 아이들이 함께 할 놀이를 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와동 마을숲작은도서관(관장 최선희)은 핸드폰 대신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낼 만한 것으로 보드게임수업을 진행했다. 2016년 ~ 2017년에 진행했던 수업이후 참여했던 엄마들이 보드게임의 매력에 빠져 자발적으로 동아리

를 만들어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보드게임 모임을 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인 이정민 씨는 "게임이란걸 몰랐는데 새로운 세계를 알게된 거 같다. 두 딸과 함께 해서 더욱 즐겁다"고 했으며, 김연옥 씨는 "보드게임에서 만난 엄마들과 얼굴을 보며 게임으로 소통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편해진다"며 "지금은 보드게임을 직업으로 연결,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업을 진행한 최선희 관장은 "나 또한 모바일에 빠져있는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 보드게임을 배웠다. 하다보니 내가 더 빠져버려 즐겁게 하고 있다"며 안산시민 누구나 보드게임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가족의 취미로 적격인 보드게임을 소개한다. △4세이상 미취학 아동-치킨차차, 게스 후?(Guess Who?), 텀블링 몽키 등. 치킨 차차는 여러 그림들을 뒤집어 놓고 찾아가는 게임. 뒤집을 때마다 달라지는 위치 때문에 의외로 찾기가 어렵다. 생각보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좋아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길때가 많다.

△초등학교 저학년-로보77, 우봉고, 할리갈리 등 로보77- 1부터 77의 숫자가 섞여진 카드를 내면서 계속 더한다. 합이 77이 되는 카드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게임. 내는 카드를 계속 더하기 때문에 저학년은 소리를 내어 덧셈을 하며 해도 좋고 고학년은 암산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 요즘 학교에서 제법 구비해놓는 게임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 딕싯, 카르카손, 카탄 등 딕싯- 게임을 하는 사람은 이야기꾼이 되어 자기가 가진 카드를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야기꾼 카드에 비슷한 카드를 내고 맞추는 게임. 카드에 그려진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유명한 게임. 그림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임방식 때문에 논술에 접목하여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다.

◇ 문의 : 와동 마을숲 작은도서관(031-401-8941)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놓치는 비극은 없어야”

양지고 사회참여 동아리 ‘도담’, ‘모세의 기적’ 청와대 청원 글 올려

양지고등학교(교장 심아연) 사회참여 동아리 ‘도담(지도교사 신평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로 위 긴급차량 길 터주기 활성화와 관련된 제안을 올렸다. 14명의 동아리 학생들이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방법을 고민한 후 여러 번 글을 수정해 올렸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했던 한수하(18) 학생은 “5년 전 TV 프로그램 ‘심장이 뒹다’에서 사고로 구급차에 실린 분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장애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면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모세의 기적 캠페인을 위해 학생들은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주변에 배포하고, 현수막을 학교 담장 밖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서해연(18) 학생은 “스티커는 소방관제청에 도안 사용을 허락받아 제작하게 됐다”며, “더 열심히 해서 이 도안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됐다”고 했다. 박서연(17) 학생은 “스티커를 배포해 선생님께 나눠 드렸는데, 좋은 일 한다고 많이 칭찬해주셔서 뿌듯했다”며, “특히 청와대 청원을 넣은 일은 색다른 경험이라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터뷰를 마치며 한수하 학생은 “사실 구급차 길 터주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당연한 일이 뉴스에 나가고 ‘기적’이라는 반응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현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며, “누구나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저



희 청원에 관심 갖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평원 지도교사는 “보통 우리 사회가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데,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토론하며 ‘결국 문화가 만들어져야 뭐가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동아리 회의할 때 굉장히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니 확실하게 배우는 게 많아진다”고 했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외에도 도담은 교내에서 게릴라 독서회, 폐도서 나눔전과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 왔다. 특히 게릴라독서회는 사전 공지 없이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책을 쌓아두고 간식을 먹으며 독서 했던 게릴라성 이벤트로 유쾌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심아연 교장은 “학생들이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우고 깨우치면서, 선생님의 격려와 지지 속에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학교’가 됐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무턱대고 공부만 하기 보단 왜 배워야 하는지 깨달아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살아있는 내면을 잘 간직하고 키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털 검색창에서 ‘모세의 기적 국민청원’을 검색하면 도담 학생들이 청와대 누리집에 직접 쓴 제안을 살펴보고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석호초 도서관 도움어머니회, 빛그림자 인형극 ‘여우누이’ 공연

“숨죽이며 관람하는 아이들 표정에 큰 보람 느껴”



암막을 친 어두운 교실에서 옆 친구와 두 손을 꼭 붙잡고 빛그림자 인형극을 보던 아이들 표정이 반짝인다. OHP필름 위에 그린 화려한 배경과 종이인형 그림자로 만든 이야기는 18분의 시간을 5분처럼 느끼게 했고, 아이들은 클로징 크레딧 음악이 다 끝나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석호초도서관도움어머니회(회장 최은숙) 회원들이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무대에 올린 빛그림자 인형극 ‘여우누이’ 공연 풍경이다. 석호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총 15차례 상영한 인형극은 석호초도서관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석 달 넘게 준비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음향과 목소리를 녹음한 후, 종이인형과 배경을 제작했다.

전래동화 ‘여우누이’를 각색한 인형극은 딸이 귀했던 집에 태어난 막내 여동생이 실은 여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셋째 아들이 위험을 헤쳐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작 자체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다 보니, 고학년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특히 6학년 아이들 공연 때는 여우탈을 쓰고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이 무대 뒤에서 등장하는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해 더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로 3년째 빛그림자 인형극을 제작한 최은숙 회장은 “매년 하다 보니 음향이나 대본도 업그레이드됐고, 엄마들 연기실력도 늘었다”며 “1, 2학년 아이들 반응은 폭발적이고, 의외로 6학년들이 가장 좋아한다. 또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아이도 있다”고 했다.

석호초 학부모회의 인형극 역사는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 탈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던 회원들은 2008 부천에서 빛그림자 인형극 제작방법을 배운 후, 지금까지 매년 새로운 동화를 선정해 빛그림자 인형극을 상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인형극 제작과정 전체가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회원들이 매일같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배경을 그리고, 인형을 자르고, 연기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루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막상 공연 때 아이들이 숨죽이며 친구 손 꼭 잡고 보다가 마지막에 통쾌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엄마들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부곡초 독서후원회 독서연극 공연

‘오즈의 마법사-쓰레기 리턴’



안산부곡초등학교(교장 박경수) 독서후원회 학부모들은 방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오즈의 마법사-쓰레기 리턴’ 독서연극 공연을 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독서연극은 자녀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에서 시작됐다. 독서연극을 통해 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흥미가 많아지고 학교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독서연극은 명작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뒷이야기를 주제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독서연극을 관람한 학생과 교사들은 “공연 배우들이 프로 연극 단원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 깜짝 놀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서연극을 처음 접한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했다. 3학년 학생들은 기억에 남는 연극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등 다양한 후기 활동까지 진행했다.

3학년 안희원 학생은 “연극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멋진 공연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쪽마녀를 맡은 분이 정말 실감나는 말투로 연극을 하셔서 너무 멋져보였습니다. 이런 멋진 공연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감동을 나타냈다.

올해 처음으로 연극에 참여한 학부모는 “연습하는 과정은 무척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뜻깊은 자리였다.”며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소, 예산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연극을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안산부곡초등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독서연극 공연은 학부모들의 열정과 맘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가 4회째다.

◇ 문의 : 부곡초등학교(031-487-729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의회, 2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및 안건 의결 등 실시



안산시의회가 25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새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김동규 의장 “새해도 도약하는 안산 시정 위해 적극 소통할 것” 다짐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25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안건 의결 등을 실시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22일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먼저 안산 시장과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이기환 의원은 와 스타디움 공실에

대한 활용계획과 선부3동 실내체육관 건립, 달미작은도서관 증축, 안산시 태권도 시범단 창단, 화정천 동서길 교통체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김정택 부의장도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시 체육회 관계자의 임명 절차 문제와 최근의 안산도시개발 사장 퇴임, 올해 시 조직 개편과 관련한 결재 과정의 적절성 등을 짚으며 시 인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질의에 나선 강광주 의원은 세월호 봉안시설의 화강유원지 설치와 관련해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아울러 모 종교단체의 와스타디움 무단 사용 사건의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진 이유와 올해 대관 계획 등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당초 질의자였던 김태희 의원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산시 청년정책 추진 현황 점검 및 청년 정책 제안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개선 방안 내용을 담은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시정질문 뒤에 실시된 안건 의결에서는 상임위 심의 결과대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수정안 가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서는 현옥순 의원이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도시 미관 저해하는 홍보 시설물 관리 철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동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2019년도 시의 시정운영 방향 및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과 신규사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도 안산 시정이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도시환경추

市 집행부와 간담회… 임시회 앞두고 주요 현안 파악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 기획행정 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전반 기 제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10일 위원장실에서 시 정책기획관 및 상생경제과, 교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안전사회지원과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관련 부서 의견 청취’ 등 업무보고 관련 안건들이 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보고 사항을 청취하면서 이해를 높인 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253회 임시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도 위원장실에서 시 도시계획과와 주택과, 공원과, 자원순환과, 교통정책과 등 5개 부서 관계자들과 ‘안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선부동 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관련 집단민원’, ‘사동공원 조성사업 현황 보고’ 등 총 6개 안건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253회 임시회 관련 안건들을 우선 파악하고, 지역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상임위 2곳의 간담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정 시간을 지나서까지 진행됐으며, 참석한 위원들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현안 분석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추, 시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불소 처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진행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가 17일 의회 문화복지위원장실에서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종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호기념관 증축 리모델링공사(문화예술과)와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및 안산시 아동청소년 구

강건강실태조사(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에 따른 약품 진량 및 불소탱크 폐기(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확충사업(위생정책과) 등 5개 부서 8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참석한 위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 관련 안건들과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을 이어가며 사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

특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과 약품 처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및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구강 건강을 위한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충실히 세워 관련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종길 위원장은 “새해 처음으로 열린 시 집행부와 의 간담회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다가오는 253회 임시회 안건 심의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문화예술 도시 안산, 꼭 안아주고 싶다

종종 예술의 전당에 간다.

문화와 예술을 잘 모르지만 안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보면 전율을 느끼며 평안함과 황홀함을 경험하게 된다. 좀 어려운 클래식이 울려 퍼질 때는 뭔지 잘 몰라서 즐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을 어루만지는 음악의 위대함과 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1년에 몇 번 저렴한 가격으로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좋다. 계절의 변화를 터치해주는 음악을 안산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어 감사하다.

도서관이나 문화광장 등에서 합창이나 중창으로 울려 퍼지는 천상의 목소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인 주는 빛과는 다른 밝음을 선사해준다. 뜻밖의 장소에서 음악으로 다가온 선물은 일상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가 된다. 특정한 장소만이 아닌 삶의 길목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안산의 노래는 마음의 노래가 된다.

몇 년 전, 도서관에서 안산시립국악단의 연주를 들었다. 국악은 지루하고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국악기로 연주되는 귀에 익숙한 음악을 들으며, 국악이 또 다른 악기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누군가 해왔던 음악이 아니라 창조자의 길을

내딛는 안산시립국악단의 연주를 들으며 어떤 가야금 연주자의 팬이 되기도 한다. 여러 번 가니 항상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먼발치에서 예술가를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국악의 끈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안산시립합창단과 더불어 안산시립국악단이 있어, 역시 안산이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느끼며 뿌듯해진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안산에 동지를 트 후 안산시민으로 10년을 넘게 살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산에서 살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에서 거리를 지날 때도 크리스마스의 불빛을 볼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차가운 계절이라 그런지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임이 훈훈하게 가슴속까지 다가온다. 거리의 아름다움, 문화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다양한 음악소리와 행사들이 안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 같다.

멀리가지 않아도, 특별히 발걸음을 정하지 않아도 삶의 길목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감사하다. 문화예술도시 안산을 사랑하고 꼭 안아주고 싶어진다.

• 김주한



독자
투고

모녀사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맛집 탐방이라도”

병원에 가면 한없이 작아진다. 특히 치과에 가면 더 그렇다. 5년 전에 크라운을 씌운 어금니가 며칠 전부터 아파서 참다못해 치과로 출동했다. 씌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실컷 따져야겠다는 다짐도 잠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자마자 나는 절로 공손해졌다. 잇몸 염증이 심해졌다면서 아예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임플란트라니! 내 나이 아직 마흔도 안됐는데 임플란트라니!! 아직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함 임플란트를 내가 먼저 첫 타자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10년 전쯤 엄마와 함께 치과에 간 적이 있다. 산부인과나 다른 병원에는 많이 모시고 가보았지만 치과는 처음이었다. 엄마가 워낙 꺼려했기 때문이다. 치료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자신의 못난 치아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셨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치아 상태를 숨기셔서 나도 취업한 뒤에야 엄마의 치아 상태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턱관절 통증이 있어 교정을 해야 했다. 내가 치아 교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지나가는 소리로 “나는 어금니도 없는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뭐? 어금니가 없다고? 어디 한번 봐봐.”라고 채근하니 엄마는 한참을 손사래를 치다 겨우 입안을 보여주셨다. 그때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엄마가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티내지는 않았다. 대신 엄마를 설득해 근처 치과에 모시고 갔던 것이다.

“엄마의 어금니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씌운 것이 아니라 마모된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이었다. 전적으로 나 때문이었다. 나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 거의 음식을 못 드셨고, 유일하게 드실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생쌀이었다. 흰죽도, 미음도 아닌 생쌀. 굵을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생쌀 섭취는 엄마의 어금니를 조금씩, 조금씩 부수어 놓았다. 돈 한 푼이 아까웠던 시절이었기에 변변한 치과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이십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것이다. 나를 포함한 가족 누구도 엄마의 이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엄마가 직접 입 안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다만, 엄마가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을 조금 늦게 먹는 편이고 자주 소화불량 또는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린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엄마의 어금니 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 당시 내 두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내야 했다. 엄마는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당시 한 집에 살았는데도 굳이 나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어 고맙다고 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것 중에 제일 잘 한 일은 바로 엄마의 어금니 치료비를 대준 것이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뿌듯한 일이다. 엄마는 누구보다 깔끔하고 치아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 뒤로는 치과 치료를 하신 적이 없다. 그때 치료받은 어금니가 여전히 짱짱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다. 사정을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너무 안타까워하며 “안 할 수 없냐”고 거듭 확인하셨다. 자신의 딸이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놀라며 걱정하시는 것 같다. 이럴 때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게 느껴진다. 마음이 또 조금해 진다. 나도, 엄마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경치 좋은 데 한 번 더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봐야 하는데…….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엄마랑 근처 맛집이라도 탐방하고 와야겠다.

• 김혜영





독자 투고

입대한 아들, 진정한 애국자



“이번 아빠 생신에는 축하 절을 못 드려서 아쉽네요. 이 편지에 다 절하면 용돈 두둑하게 주실 거죠?” 마지막 5주차 훈련을 남겨 놓은 군대 간 아들의 편지 일부분이다. 기특하다. 군대에서 제 애비 생신 챙길 줄도 알고.

“사회에서는 먹지도 않던 건빵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되어 버렸네요. 엄마 아빠, 건빵이 너무 맛있어요. 별사탕도 맛있고...” 입영 후,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써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게 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훈련소에 가던 날,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 군대에 보내고 돌아 왔더니 집안에 찬바람이 훑 돌아다. 든 자리는 표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나 남은 딸내미마저 제 방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 길을 가다 보면 군복 입은 군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텔레비전을 보다 군인만 나와도 울컥했다. 요즘은 좋아져 인터넷에 훈련소 전용 카페를 신설해 놓고 있다. 편지도 카페에 올리면 매일매일 출력하여 훈련병들에게 전달해 준다. 카페에 올라온 편지들을 읽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것을 느낀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슴을 죄고 있다. 예전에는 몇 대 독자 이상이면 군대를 면제해 주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독자가 아닌 아이가 드문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부모대로 애잔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다. 더불어, 강인한 군인을 만들어야 하는 훈련소의 역할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만큼 사랑으로 자식처럼 보살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보내온 부대장의 편지 내용이다. 군에서도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당 부대의 부대장을 여성으로 배려한 것 같다. 정말 그 편지를 읽다 보니 적이 안심이 되는 것을 보면 그 효과가 그만큼이다. 보고 싶다 아들. 그러나 당장 못 보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니까. “아들아, 네가 바로 진정한 애국자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복무하거라.

• 권순도



독자 투고

안전 비상벨,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안산시가 비명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하는 자동형 비상벨을 공중 화장실에 추가 설치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건이 안 돼 비상벨을 누르지 못해도 비명만으로 112상 황실과 연결되는 기능을 갖췄다고 한다.

시내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30개소에 이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성으로서, 그리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발 빠른 행정이라는 생각이다.

지난해 내가 겪은 경험담이다. 지방의 모 소도시에 출장을 간적 있었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마침 용변이 급해 도로가 가까운 곳 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약간 어스름한 시간이었던 탓에 공원에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간간히 운동하는 사람들만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용변을 마친 후 문을 열고 나왔는데..., 화장실 문 앞에 웬 남자 한명이 딱 버티고 서서 나를 노려보는 게 아닌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른다. 그는 나에게 “라면 값 좀 달라”고 손을 벌렸다. 너무나 겁이 나서 지갑을 열어 손에 잡히는 대로 건네주고 ‘걸음아 나 살려라’ 후다닥 뛰쳐나왔는데,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났다. 차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정신을 차린 후 지갑을 열어 보니 5만 원짜리를 건네준 것 같아 너무나 아까웠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었고 소름 돋도록 겁이 났다. 또한 그 노숙자가 이성을 잃고 엉뚱한 행동을 했다던?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하지만 내가 사는 우리 안산시에는 이런 비상벨을 설치한다니 정말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외적으로도 안산은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커질 것 같다.

지난해 그 당시 만약 화장실 안에 이런 벨이 있었다면 노숙자가 감히 나타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사 그랬다 해도 나는 벨을 누르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걸 꼭 필요한 장치라는 생각이다. 안전한 도시 안산을 응원한다.

• 민경화



독자 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



사십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우연히 알게 된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가 어찌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자 재능기부라는 작은 봉사활동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

‘이야기 할머니’가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주일에 세 번 찾아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 그들의 환한 동심과의 만남이 이토록 행복할 줄이야. 이 느낌을 알기 까지 7년이나 지났고, 어느새 칠순을 준비하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내 모습에 가끔은 놀라기도 한다.

‘이야기할머니’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펄쩍 뛰던 남편과 딸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남편은 “그 동안 직장생활 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집에서 손주나 보며 편히 쉬라”며 배려했지만, 이웃에 살면서 맞벌이로 직장에 다니는 딸은 생각은 좀 다른 듯했다. 걱정스런 마음이야 아빠와 같았겠지만, “연년생인 외손자 치다꺼리는 어떡하라고...” 하는 푸념 속엔 자식 걱정하는 어미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가하면 퇴직 동기들과 친구들 역시 만날 때마다 첫마디가 “미쳤어, 미쳤어!”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고마운 말들인데 어찌랴. 그래도 “이 나이에 뭔가를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다”는 내 진심어린 말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던 내 친구들의 마음도 마냥 고마울 뿐이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온 이야기 할머니란다.” 첫 인사말이 채 끝나기

도 전에 “이야기 할머니가 뭐예요? 몇 살 이예요? 무슨 이야기 인데요?”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야단법석이던 그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되거나 한 해가 끝날 무렵이 되면 내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서운해 하면서 “할머니 그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공 장수는 죽었나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하며 이야기 속에 폭 빠져 아기배나무처럼 여물어간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육의 힘구나’ 고맙고 대견스럽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는 섹터 쥘페리 ‘어린왕자’의 한 대목이 더 살갑게 느껴진다.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하는 날이면 덩달아 바빠지는 우리 신랑, 남자가 부엌에 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던 그가 손수 밥상도 차려주고 굳이 운전기사를 자청하기도 한다.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원고를 외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격려해주던 남편의 그 따뜻한 속마음을 모를 리 없는 나이기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내 속마음도 전하고 싶어지는 기해년 새 아침이다.

• 광필순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1.23.~27. ⇨ 신년특집 공감토크 : 티브로드 한빛방송
1.25.~29. ⇨ 안산사이언스벨리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추진 : O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19년 설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중지 안내

설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업체 휴무 등으로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쓰레기(음식물 포함) 수거가 중지됩니다.

< 설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

설 연휴	2.2.(토)	2.3.(일)	2.4.(월)	2.5.(화), 설	2.6.(수)
수거 여부	정상 수거	휴무일	정상 수거	수거 중지	수거 중지

※ 수거중지 기간 중 재활용품 수거도 중지됨.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 (☎031-481-2259)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축제



◇ 일시 : 2019.2.23.(토) 09:30~16:00
◇ 장소 : 안산시청 제2별관동 (舊 단원보건소) 1층 로비
◇ 내용 : 교복 기부 및 유상 판매 ⇒ 수익금 어려운 청소년 지원
◇ 주관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등 6개 소비자단체

◇ 교복접수기간 : 2019.2.11.~15.
※ 교복접수 장소는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대부동 제외)
※ 교복은 무료로 접수 받으며, 접수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양대학교 ERICA 국제교육원 2019 봄학기 신입생 모집

10주 동안 진행되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

- ◇ 일정 : 2019.3.11.~5.20.
- ◇ 대상 : 국내외 거주 외국인
- ◇ 신청기간 :
 - 비자가 없는 경우 : 2월 1일까지
 - 비자가 있는 경우 : 2월 22일까지
- ◇ 문의 : 031-400-5847(중국어)/031-400-5842(영어) ericaie@hanyang.ac.kr

경기창작센터 안산시 입주작가 모집

- ◇ 입주기간 : 2019.3월~2020.2월 (1년)
- ◇ 접수기간 : 2019.1.30.~2.7.
- ◇ 지원분야 및 선발인원 : 시각예술분야(회화, 조각, 영상미디어, 건축, 디자인, 사진, 공예 / 선발인원 : 2명)
-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5)
- ※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참조

책 읽는 안산 / 1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책』

아동



기적의 피아노

저자 전지은 / 출판사 가나출판사

한 아이의 성장담이자 도전담인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피아노]를 동화로 만든 책이다. 시각장애 꼬마 천재 피아니스트 예은이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탄을 받지만, 악보를 보지 못하고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결국 첫 콩쿠르 도전마저 실패하며 '남과 다른 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예은이의 모습을 그리며, 작가는 꿈을 찾다가 지친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청소년



편의점 가는 기분

저자 박영란 / 출판사 창비

재개발이 예정된 오래된 마을에서 외할아버지의 마트 일을 도왔던 소년 '나'는 할아버지가 마트를 그만두고 24시간 편의점을 열면서 밤새 편의점을 지키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은 그런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손님들과 가까워지고 아픈 사연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소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외롭고 가난한 인물들이 서로 보듬고 연대해 가는 과정을 통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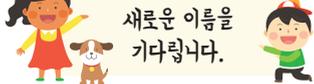
당신의 완벽한 1년

저자 샤를로테 루카스 / 출판사 북림

오랫동안 인생의 의미를 잊고 살았던 요나단 그리프는 오직 평온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데 만족한다. 그리고 1월 1일도 언제나처럼 새벽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가 30년 전 자신을 떠났던 어머니의 서체를 닮은 글씨들이 적힌 새해의 다이어리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새로운 1년을 맞아, 불완전한 두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 다투고 포용하며 마음을 키워가는 모습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안산 시정 소식지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세요!
(명칭·제호)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사용한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호 '브라보안산'을 신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새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안산시의 특성을 살리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은 새 이름(명칭)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기간 : 2019.1.31.~2.22.(22일간)
- ◇ 제출방법 :
 - 이메일 접수(xboy7x@korea.kr)
 - 홈페이지 방문(www.iansan.net)
 - QR코드 인식(http://naver.me/51JDmS7e)
 - 우편 및 방문접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홍보기획팀)

※ 핸드폰 번호와 성명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홈페이지 참조 또는 공보관(031-481-2042)

깨끗한 선거로 조합의 밝은 미래가 피어납니다

투명합수목, 깨끗합수목, 조합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본분한 우리 조합 조합원의 한 표로 만듭니다

능협 | 수업 | 산림조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 오후 5시까지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

조합장선거 범규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